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0호 【루계 제24988호】 주체104(2015)년 7월 29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2호물길굴 전구간에서의 피복공사 빛나게 결속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에서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의 미더운 청춘들이 터뜨리는 승리의 함성이 또다시 울려퍼지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2호물길굴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결사의 각오를 안고 줄기찬 돌격전을 벌려 27일 21시 30분 려단이 맡은 물길굴바닥피복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지난 16일 평안북도려단이 맡은 구간의 물길굴바닥피복공사를 끝낸데 이어 이번에 함경북도려단에서 승리의 결승테프를 끊음으로써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중요대상의 하나인 2호물길굴 전구간의 피복공사가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현장편합지휘부의 일군들은 1호언제공사와 함께 2호물길굴공사에 큰 힘을 넣고 피복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잘하였다.

책임일군들이 물길굴공사를 맡은 평안북도려단, 함경북도려단의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세웠다. 특히 평안북도려단에서 바닥피복공사를 결속한데 맞게 함경북도려단의 공격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기동적인 대책들을 취하였다.

함경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당앞에 걸의다진 7월공사목표수행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위훈창조의 한길로 내달렸다.

려단의 지휘관들은 7월중순에 들어와 상부피복공사과정에 높이 발휘된 청년돌격대원들의 비상한 정신력을 다시한번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2호물길취수탑공사로 하여 려단의 작업조건이 남달리 불리해진데 맞게 청년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줌으로써 그들모두가 일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려단과 대대의 지휘관들이 물길굴피복현장을 타고앉아 기동적인 전투조직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이 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교대별,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모든 공정마다에서 련대적혁신이 창조되였다. 각 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굴착작업을 선행시키는데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7월 중순에 굴착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함마와 정대를 들어쥐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한주일동안에 600m이상의 바닥굴착을 진행함으로써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굴밖에 대담하게 혼합장을 전개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운행로정을 극복하며 교대 전기간 혼합물을 실은 광차를 밀며 달리고 또 달리여 타임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바닥콩크리트치기를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치였다. 그들은 한m한m의 구간마다에 당을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티없이 깨끗한 충정을 바쳐간다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혼합물다짐을 질적으로 하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려단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공격전에 의하여 려단은 하루평균 30m, 최고 40m의 높은 전진속도를 보장하면서 1 000m가 넘는 바닥피복공사과제를 불과 30여일만에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로써 당창건 일흔돐전까지 기어이 1, 2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할 신심과 배짱이 차고 넘치였다.

백두청춘의 슬기와 담력을 발휘하여 2호물길굴의 기본공사과제를 끝낸 평안북도려단,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물길굴주입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발전소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들에 달려가 혁신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쑥섬지구의 원림록화사업 활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과학기술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며 거창한 창조물이 일떠서고있는 쑥섬전역에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이곳으로 달려나온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림록화사업을 활발히 벌려 과학의 섬을 푸르게 단장시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전당건설장주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1만 3천여그루이며 조성된 잔디밭면적은 7만 2천여㎡에 달한다. 이와 함께 마감단계에 있는 구조물공사들이 끝나면 그 주변에 잔디와 나무를 짧은 기간에 심을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상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완공과 함께 건설장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바람세찬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쑥섬의 원림록화를 비롯한 주변환경정리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에서는 계절별, 단계별로 원림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작전을 빈틈없이 세웠다.

지휘부일군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지대정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원림록화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여름철조건에 맞게 해가 진 저녁부터 나무심기를 하고 심은 나무와 잔디에 대한 영양액주기, 잔디깎기, 살균제뿌리기 등 높은 기온에서도 나무와 잔디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전당건설장 체신성, 외무성, 금강지도국, 은하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도 잔디비배관리에 필요한 양수기, 분무기, 잔디깎는기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과학기술전당원림록화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강안도로방향 경사록지구획을 맡고있는 로동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자원개발성, 대외경제성, 도시경영성, 보건성, 금속공업성에서도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많은 부식토와 버림목, 해가림막을 준비하여 원림록화사업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게 될 과학기술전당의 중심구획록화사업을 맡고있는 직총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 잠업비단공업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릴 불같은 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수십종의 나무모들을 마련하여 정성껏 심었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식물학연구소와 산림과학원의 연구사들은 계절조건에 맞게 나무와 잔디옮겨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잔디밭비배관리와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데서 자신들부터가 앞장서고있다.

지금 지휘부에서는 구조물공사와 하부망공사가 끝나는 즉시 록화사업을 빠른 기간에 끝낼수 있게 해당 단위들에서 수만㎡의 잔디밭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나무모들을 실어올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고있다.

불같은 애국의 한마음안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지성을 다해가고있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원림록화사업성과는 날을 따라 계속 확대되고있다.

전혁철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적극 추진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서부지구 굴지의 탄전의 하나인 탄광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완공되면 종전에 주요갱들에서 나오는 석탄을 전차로 운반할 때에 비해 운반능력이 1.3배로 높아지게 되며 석탄생산량도 그만큼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된다.

석탄공업성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련합기업소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창건 일흔돐까지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끝낼 비상한 목표를 내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감으로써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탄광앞에 나선 석탄생산목표는 방대하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날로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지난해보다 1.3배 높은 석탄생산계획을 돌파하여야 하며 앞으로 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할수 있는 돌격로를 열어야 한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석탄증산의 방도를 석탄공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에서 찾았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탄광들에서 능률이 높은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아 석탄운반을 다양화함으로써 탄부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을 최대로 발휘하여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공사를 년초부터 내밀었다.

성과 련합기업소일군들이 공사현장에 수시로 내려와 걸린 고리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갱막장에서부터 저탄장을 련결하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공사는 지하와 지상 두개 방면에서 진행되였다.

갱막장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구조물공사를 진행하자면 기본갱도와 사갱구역에서 굴진공사가 선행되여야 하였다.

지난 시기 전국적규모의 대상공사들과 탄광의 전망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대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온 3갱 김영민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800m구간에 달하는 기본굴진과 사갱굴진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은 지상구조물공사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기본갱도입구에서 저탄장을 련결하는 수백m구간의 벨트콘베아수송선지상구조물공사 역시 작업량이나 규모에 있어서 품이 많이 드는 공사였다.

로반구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박토량은 1만㎥에 달하였고 원동장치를 들여앉혀야 하는 건물건축공사는 산중턱에 쌓여있던 방대한 량의 버럭과 토량을 처리하면서 진행해야 하였다.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들과 륜전기재들을 앞질러 풀어나갔고 공사에 동원된 탄부들, 가두녀맹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전투를 벌려 련일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하였다.

지하와 지상에서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기 위한 구조물공사가 벌어지고 대부분의 벨트콘베아수송선설비와 부분품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7월 10일까지 지하구조물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지상구조물공사량의 60%계선이 돌파되였으며 천수백m의 벨트콘베아들이 제작되였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창건 일흔돐까지 높이 내세운 화력탄보장계획을 일별, 월별로 빛나게 수행하면서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청천강반을 진감하는 장쾌한 동음

희천8호와 9호,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설비시운전 성과적으로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의 새 소식이 자랑스럽게 전해지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일념안고 공사장마다에서 눈부신 투쟁을 벌려온 희천8호와 9호, 5호발전소건설자들이 발전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완공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하루빨리 휘날릴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발전소별시운전준비상태에 따라 시기를 정확히 정해주는 한편 이 사업을 맡은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공정검사와 정비작업들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조립설치된 언제수문들의 용접추진정형에 맞게 처음부터 물잡이공정에서 수압에 따르는 합리적인 수위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점차 높은 수압에 따르는 시운전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현장지휘부의 이런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작전과 지휘가 앞세워지는 속에 평안남도려단이 맡은 희천8호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기가동시험이 진행되였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려단지휘관, 돌격대원들과 함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충천한 기세로 떨쳐나섰다. 1호발전기의 시운전구령이 떨어지자 조속기가 가동하고 안내날개들이 열리며 회리실에 차있던 물이 수차실로 사품쳐흘러들었다. 순간 육중한 수차축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수차축과 련결된 발전기회전자가 용을 쓰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지령에 따라 안내날개각도가 커지자 수차실의 물량이 늘어나며 회전자의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려퍼졌다.

1호발전기에 이어 2호발전기가동시험이 원만히 진행되고 련이어 부하시운전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에 생산된 전력이 소비지로 원만히 송전되였다.

평양시려단이 맡은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의 발전기가동시험도 최대락차고를 가까이한 수위상태에서 진행되였다. 1호발전기의 가동시험과 2호발전기에 대한 무부하 및 부하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생산된 전력이 옥외변전설비를 통해 송전되였다.

황해남도려단이 맡은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에서도 발전설비시운전이 진행되였다. 이미 희천8호와 9호발전소건설장에서의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전투원들이 1호발전기의 충분한 가동시간을 보장한 후 2호발전기의 무부하시운전단추를 누르자 발전기실안에 설치된 각종 조종반, 측정반들에 류량, 수위, 압력 등이 정확히 현시되였다. 수차를 돌린 청천강물이 방수로수문으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사품쳐내리고 방수계통의 가동상태도 정확히 확증되였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에서의 시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여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에 원만히 송전하였다.

희천8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시운전후 련관부문 로동계급과 함께 총돌격전을 벌려 수문의 완성용접과 도색, 보호재료입히기 등 마감작업들을 불과 20여일동안에 끝내였으며 련이어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부하운전을 진행함으로써 7월 28일현재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 평양에 보내주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대축전장에로 향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리는 속에서 이렇듯 여러 발전소의 발전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은 실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희천8호와 9호,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기일을 앞당겨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발전소완공의 선차적공정인 발전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중요요소들인 취수와 방수, 발전계통은 물론 언제수문들의 견고성이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담보되고 수문용접작업들을 신심있게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 완성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청천강을 하루빨리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현장지휘부와 해당 단위 일군, 전투원들의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로서 조선속도창조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기풍

누에고치생산장성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에고치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잠업도, 비단도로 전변된 자강도에서 올해 봄누에고치생산이 훨씬 장성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봄누에고치생산계획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16%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누에고치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들은 천수백t의 화학비료와 효능이 높은 10여t의 고농도유기영양액, 6천여개의 배낭식분무기, 야외누에칸건설에 필요한 비닐박막과 많은 소독약들을 마련하여 도안의 잠업농장,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 잠업분조들에 공급해주었다.

도안의 잠업부문 농업근로자들은 뽕밭 정보당 20t의 질좋은 유기질거름과 5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효능이 높은 고농도유기영양액을 리용하여 병해충을 구제하고 가물피해를 막으면서 정보당 뽕잎생산을 늘이도록 기술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잠업부문의 농업근로자들은 고농도유기영양액을 뽕나무들에 과학기술적으로 치면서 정보당 뽕잎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뽕잎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나 높아졌다.

누에고치생산에서는 중강군, 강계시, 성간군, 시중군, 만포시와 장강군 혁신잠업전문협동농장, 중강군 상장협동농장 잠업작업반들이 모범을 보이였다.

잠업농장,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 잠업분조들에서 누에고치따기가 끝난데 이어 누에고치건조와 수매가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시, 군 잠업물자공급 및 수매사업소들에서 수매받은 누에고치를 지체없이 희천제사공장에 보내주도록 수송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올해 봄누에고치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낸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어린누에칸소독, 야외누에칸정리 등 가을누에치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선군조선의 만년재보이다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나라와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힘이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이 흘러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가슴벅차게 되새기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승리의 7.27이 있어 오늘의 조선이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1

지난 1950년대초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류례없이 치렬하고 엄혹한 전쟁이였다. 비록 조선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벌어졌지만 그것은 자주와 정의, 세계민주력량과 인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쟁이였고 청소한 인민민주주의국가와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강대한 제국주의국가간의 정치군사적대결이였다. 보통의 상식과 전례를 완전히 벗어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필연적귀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인민대중의 모든 혁명투쟁이 다 그러하듯이 혁명전쟁도 걸출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10대에 강도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사항전을 선로하시고 피어린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패망시키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에 벌써 세계가 공인하는 불세출의 정치군사가, 천하제일명장, 반제투쟁의 탁월한 령도자로 존경을 받으시였다. 세계제패야망과 힘의 파신에 들뜬 미제가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것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이였고 서산락일의 운명에로 향한 파멸의 서곡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는 이미 첫시기부터 승리한 전쟁을 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군사사상과 지략, 전법의 승리이고 불굴의 의지와 비범한 령도예술의 승리이다.

20세기는 파시스트들과 외래침략자들을 처물리친 전승의 위훈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가치에 있어서나 민족사적, 세계사적의의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의 전승업적에는 견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하나하나가 다 가장 영웅적이고 전무후무한 정치군사적기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겨레, 세계인민들과 교전국의 정치가, 군사가들까지 세기가 교체된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그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신것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식민지지배와 략탈을 위한 침략전쟁이 더욱 미친듯이 감행되였다. 여기에서 주되는 세력, 우두머리가 바로 미제이다.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가 살판치는 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이 저절로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하여도 방대한 군사경제력을 가진 《초대강국》인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로 간주되고있었다. 미국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던 이러한 관념에 종지부를 찍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버리시여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신분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다.

제국주의와의 전쟁은 불과 불의 대결이기 전에 신념과 의지의 대결, 지략과 전법의 대결이다.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자는 그가 누구이건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고 그 어떤 강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며 대담한 공격과 변화무쌍한 전략전술로 천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견결한 반제투쟁의지, 빨찌산식 싸움방식이다.

적들의 대병력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배포유하게 맞받아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그 어느 나라 군사교범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전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신 수령님의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불패의 전통》을 자랑하던 미제의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이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주고혼이 되였고 미제가 그처럼 믿던 군사기술적우세와 방대한 최신무기들도 여지없이 격파당하였다. 전쟁의 전반적형세와 적들의 허점을 꿰뚫어보시고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지략앞에 미국의 군사가, 책략가들이 고안해낸 군사작전들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결국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덤벼들었던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파멸이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제는 세계《최강》이 아니라 가장 취약하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때부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은 세계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영웅조선, 영웅적인민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작은 나라와 민족일수록 더욱 기고만장하여 달려드는 포악무도한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으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셔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타고앉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괴수로 등장한 미제에게 있어서 세계제패의 발판을 마련하고 반제민주력량, 사회주의력량의 장성을 막기 위한 급선무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서둘러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가리싸움이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의 본질을 통찰하시고 전쟁의 매 단계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시여 적들의 음흉한 계획과 반사회주의침략기도를 걸음마다 격파분쇄하시였다. 여기에는 일거에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다음단계의 작전에로 넘어가려던 적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시초에 짓부셔버리신 특기할 공적도 있고 대규모공세들을 련이어 파탄시켜 미제를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들의 모험적인 핵전쟁계획, 새로운 세계대전도발계획을 좌절시키신 경이적인 기적도 있다. 숨돌릴새없는 맹렬한 타격과 섬멸전으로 전쟁전기간 적들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던 미국통치배들의 망상은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결국 전 조선을 타고앉아 사회주의나라들과 나아가서 세계를 손아귀에 넣으려던 미제의 침략전쟁은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조미대결로 압축되게 되였다.

당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전쟁에 들이민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은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정도였다. 반면에 조선반도주변의 사회주의력량은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세계제패야망과 전쟁열에 달아오른 침략무력의 《십자군원정》을 완전히 괴멸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하여 또다시 일어날번 한 세계대전의 참화가 해소되고 사회주의진영이 보존강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진보적인류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로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시고 선군조선의 고귀한 정신적재부를 마련하신것이다.

예로부터 전쟁은 희생과 파괴의 대명사로 되여왔다. 조선전쟁기간 미제는 수많은 조선인민들을 학살하였고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경제적토대,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무참히 파괴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일 정도로 조선전쟁의 파괴상은 혹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여러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을 소집하시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전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전체 군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이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략전술과 대중적영웅주의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은 조국해방전쟁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있는 령도에 의하여 전쟁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방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민족간부대렬이 보존강화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강해진것은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적들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은 천만군민이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불비쏟아지는 최전방에까지 나가시여 인민군장병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후방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병애민의 세계에서 유명무명의 수많은 영웅들이 자라났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더욱 억세여졌다. 승리를 확신하시며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힘은 백배해졌고 우리 혁명대오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인 동시에 현대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긴 거대한 사변이다. 이 전쟁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기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2

제국주의침략을 쳐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것은 그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하지만 그 참다운 의의는 당대뿐아니라 후세에도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되여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더해주고 인민대중의 투쟁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생명선이며 만년재보라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60여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총포성없는 치렬한 전쟁의 련속이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반세기가 훨씬 넘는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련전련승을 떨쳐올수 있었으며 재더미를 덮고 건설한 인민의 락원에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선군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줄기찬 전진도, 이 땅우에 세기적전변을 안아온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스러운 전통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전승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억세게 이어지는것이 우리 전승의 위훈이며 전통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높이 떨쳐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가증되는 침략책동속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반제군사전선은 의연히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된다. 여기에서 적들을 제압하여야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고 강성번영의 휘황한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수 있다.

반제투쟁의 승리는 무적의 군력에 의하여 담보되며 여기에서 기본은 사상과 전법의 우월성이다. 군사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무장장비의 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 오늘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사상과 전법이 위대하고 기질과 정신이 강한 혁명군대만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 이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수령님께서 펼치신 탁월한 작전적구상들과 전투방식, 수령님의 열화같은 애병정신은 그 어느 군사가나 위인의 전기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지 얼마 안되는 우리 군대가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정신도덕적우세로 타승하고 적들에게 쓰디쓴 참패만을 안길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의 고귀한 밑천이 마련되고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 압도적우세를 차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대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백승의 전략전술, 일당백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백두산총대의 위력앞에 미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도발책동과 침략적인 전쟁계획들이 걸음마다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원쑤들의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무비의 배짱과 대담한 공격기상, 백수, 천수를 내다보며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정신도덕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제압해나가는 신묘한 지략과 전법들은 우리 군대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쟁의 포화속을 헤쳐오면서 터득한것이다. 당대에 세인을 경탄시킨 위대한 전승업적을 60여년간 빛나게 계승하여온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위력은 더없이 무진막강하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핵과 미싸일도 무서워하지만 위대한 전승업적을 물려받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앞에 더욱 벌벌 떨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지난 전쟁때보다 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면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대를 이어 영웅서사시를 창조해나가게 하는 백승의 무기이다.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2대기둥이며 사회주의건설의 2대력량이다. 그 어떤 적과 싸워서도 승리를 이룩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군민일치보다 더 힘있는 무기는 없다.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투쟁하는데 혁명위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가 있다.

우리의 군민일치는 오래고도 억센 뿌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전호에서 피와 살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전우로, 떨래야 떨수 없는 혼연일체로 더욱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전쟁이 아무리 엄혹하여도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군민을 한전호에 세우면 원쑤들을 처물리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조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이나 대포보다 언제나 군대와 인민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불비쏟아지는 전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찾으시였다. 최고사령관이 싸우는 전사들의 친부모가 되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고 인민의 어버이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형언할수 없는 시련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조국의 촌토를 끝까지 사수하며 원쑤들을 무찌를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이야말로 수령의 두리에 군민이 굳게 단결하여 이긴 전쟁이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한 전쟁이다.

전화의 불비속에서 혈연의 뜻과 정으로 맺어지고 가장 공고히 다져진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한 전승세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그대로 높뛰고있다. 위대한 전승업적을 물려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웅적위훈을 떨쳐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의 련대성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자면 반제자주력량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저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외곡하며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여기에는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전 조선에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려는 위험한 흉계가 깔려있다. 그러나 적들은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질수 없고 진리는 궤변으로 덮어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민족대단결과 민족번영의 생명선이고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전체 조선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끝끝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것을 단호히 처물리치시였기에 우리 민족이 생사기로의 위기에서 구원되고 조국통일운동의 위력한 력량이 마련되게 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반제자주력량과 세계 진보적력량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도록 하시여 조선전쟁의 확대를 막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정치군사적공세를 처물리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은 인류해방투쟁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한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인류의 정의와 량심을 믿음직하게 수호한 국가는 우리 공화국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침략전쟁의 도발자, 수치스러운 패배자는 미국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전승업적은 조국과 민족,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 침략전쟁책동을 쳐물리치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굳건히 고수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선군의 기치밑에 총포성없는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현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마련해놓으신 백두산대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담무쌍한 공격정신과 천변만화하는 지략앞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이 총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군대와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해마다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7.27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김 정 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마다에 새겨가는 참관자들
—전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원수복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

주체42(1953)년 7월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성대히 경축하였다.

그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러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입으신 원수복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전승의 축포가 오르기 몇달전인 주체42(1953)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하여드렸다.

뜻깊은 그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원수복을 입어보시라고 청을 드리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원수복을 입으시는것을 굳이 사양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는것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아뢰이며 거듭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절절하게 올리는 일군들의 청을 더는 사양할수 없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원수복을 입으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원수복을 입으시고 인민들앞에 나서시는것을 사양하군 하시였다.

일군들이 원수복을 입으실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수복을 입고 전사들과 인민들을 만나면 그들이 어려워한다고 한사코 밀막으시였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것이라 하여도 그것때문에 인민들이 어려워하며 간격을 두게 할수 있는것이면 조금도 허용치 않으시는 그이이시였다.

마땅히 입으셔야 할 원수복마저 입지 않으시고 전사들과 인민들을 찾으실 때마다 그들의 눈에 익은 옷차림을 하시고 가시는 우리 수령님,

초연에 그슬리고 색이 바랜 옷을 입으시고 전사들과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그이께 일군들이 새옷을 해드리려고 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위해드리려는 인민들의 성의에 대하여 자신께서 잘 아신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더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고, 나뿐아니라 최고사령부에서 사업하는 모든 동무들이 다 검박하게 생활하는데서 거울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지 않았던가.

이처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강하시고 평민적인 생활이 몸에 푹 배이신 그이이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였지만 원수복을 입으시는것을 굳이 사양하신것이다.

승리의 7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령장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가슴후련히 터치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성은 미제와 그 련합세력을 처물리치고 우리 공화국을 수호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고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의 폭발이였다.

그 장엄한 환호성의 메아리는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를 울려주며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 레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 가이움각하

나는 말디브독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25일 평 양

본로비아

리베리아공화국 대통령

엘렌 죤슨 써리프각하

나는 리베리아독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롭게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민족적단합과 사회경제적발전,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26일 평 양

팔 청 혁 명 사 적 지

팔청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찾으시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인민군군인들과 이곳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에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3월 어느날 서울과 대전해방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잘 싸웠고 간고했던 적후투쟁에서도 탄약과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포위섬멸하였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늦게까지 부대군인들과 담화하시면서 인민들과의 관계, 부대의 훈련정형과 전투기술기재의 동원준비상태, 후방사업정형 등 부대안의 전반사업을 알아보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의 전투임무를 제시하시고 적항공륙전대는 공중에서, 바다로부터 기여드는 적들은 바다에서 소멸하기 위한 방도와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에게 새 군복과 신발, 발싸개를 공급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팔청리 일군들과 녀맹일군, 피살자가족, 후방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전시알곡생산을 위한 방도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밝혀주시였으며 그들에게 군용차로 소금과 고무신을 보내주시였다.

팔청혁명사적지에는 련대지휘부, 통신중대병실, 2대대지휘부, 3대대지휘부, 반땅크포소대병실, 포진지, 자동총중대병실 등이 있으며 혁명사적표식비가 있다.

련대지휘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른새벽에 이곳을 찾으시여 친히 전투일보를 보아주시고 하루밤을 주무시면서 부대의 전투임무와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신 사적이 깃들어있다.

통신중대병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신은 부대의 신경이므로 통신기재를 애호하고 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지휘관들이 유선이나 무선을 잘 알뿐아니라 정치선동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자동총중대병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다루고 계급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전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2대대지휘부에는 몸소 비상소집명령을 내리시고 부대의 전투준비상태를 알아보시였으며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길 전법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이 있다.

3대대지휘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반땅크포소대병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을 실정에 맞게 하여 포병들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키울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포진지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의 훈련과 포관리정형을 알아보시고 포병의 역할과 포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밖에도 팔청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 인민들과 담화하신 장소가 있다.

오늘 팔청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불멸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하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큰물피해방지를 담보하는 련합작전

금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날씨조건을 이겨내며 정성들여 심고 가꾼 곡식이 한포기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금천군 일군들이 큰물피해방지를 위한 련합작전을 펼치고 연 수천m의 하천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여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한것은 경험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이런 작전이 펼쳐지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토지를 보호하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그러자면 큰물피해위험요소들을 모두 찾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군책임일군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현지로 나갔다.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그들은 현내리의 어느 한 하천기슭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천바닥이 높아진것은 물론 제방높이도 평균 1m정도밖에 안되므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 농경지가 피해를 받을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물이 지속되다보니 하천공사에 관심을 많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과 하천공사가 급선무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사에 력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군책임일군이 먼저 자기의 주견을 내놓자 일군들은 우리 군에서는 미루벌물길관리소와 연백호물길관리소에서 례성강물조절만 잘하도록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천공사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도 되지 않는가고 하였다.

십분 리해되였다. 이 물길관리소들에서 신곡저수지와 례성강6호발전소언제의 수문조절을 과학적으로 하면서부터 큰물피해가 훨씬 줄어든것만은 사실이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 즉 큰물피해방지문제를 당정책관철의 견지에서 보지 못하는데로부터 하천공사는 소홀히 여기는것이였다.

큰물피해방지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부터 바로잡아주기전에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그는 올해에도 비가 적게 내리면 큰물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다, 문제는 그것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의 지휘관이라는 관점이 부족한데 있다고 오금을 박았다.

당정책관철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책임일군의 말을 들은 일군들은 그때에야 지난날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천공사문제를 놓고 이런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우선 하천을 곧추 펴야 한다. 장마철에 물이 내려오다가 곡선으로 된 구간의 제방을 치면 1～2시간안에 터질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되여 애써 가꾼 많은 알곡을 잃어버릴수 있다.

우리 군에는 이런 하천이 여러개이므로 큰물피해를 받으면 많은 알곡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하천을 곧추 펴자면 수만m³의 흙을 파내여 제방을 쌓아야 하므로 일감이 방대하다. …

이때 책임일군이 제힘을 믿으면 천리도 지척이라고 하면서 이미 불도젤이 있는 단위와 련계를 가지였다고, 로동자, 사무원들과의 련합작전으로 공사를 내밀어 한주일내에 해제끼자고 하였다.

일군들이 호응해나섰다. 불도젤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기때문이였다.

사실 군책임일군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였었다. 그 과정에 불도젤이 있는 단위와 련계를 가져야 하천공사를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그는 그곳을 찾아갔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 단위 일군은 큰물피해를 막는 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호응해나섰다.

며칠후 불도젤들이 현지에 도착하자 련합작전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군들이 잘한것은 곧추 펴야 하는 구간을 중심고리로 정하고 불도젤들을 집중한것이다.

수백명의 로력을 대신하는 불도젤들의 발동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 공사성과가 확대되였다.

목표가 뚜렷하고 과학적으로 안받침된 작전은 승리하기마련이다.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먼저 하천을 곧추 펴면서 흙을 파내여 제방을 평균 2～3m 높이로 쌓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돌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대와 함마로 바위를 까내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까낸 돌을 제때에 운반하였다. 한편 일군들은 공사성과가 오르는데 맞게 기술지도에 품을 들이였다. 이 일대에는 모래가 많다.

그러므로 물량이 급격히 불어나는 경우 제방이 무너질수 있다. 때문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방의 경사도를 35°로 보장하면서 든든하게 쌓아나갔다. 이와 함께 그들은 장석공사를 하면서 하천바닥을 깊이 파고 기초를 기술적요구대로 쌓아 제방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군에서는 이렇게 련합작전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천수백m의 하천을 곧추 펴면서 수만m³의 흙을 파내여 제방을 쌓고 장석공사를 한데 이어 잔디심기까지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군에서는 여러 농장의 하천공사도 이런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내였다. 결과 큰물로부터 농경지가 보호되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또한 군의 면모도 더욱 일신되였다.

현실은 일군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제힘을 믿으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 사업을 전개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조건보다 혁신할 생각을 앞세울 때

봉천군 신명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봉천군 신명협동농장 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강냉이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의 힘으로 짓는다.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할수록 농장일군들은 언제나 이것을 명심하고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아 현장지휘를 해나가고있다.

강냉이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강냉이는 개꼬리가 나오는 시기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요구한다. 그런데 올해는 갈수록 최악의 가물이 계속되였으며 어느때에 무더기비가 내리고 태풍이 들이닥칠지 모르게 일기가 변덕스러워 농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일군들은 자연기후조건에 빙자하기전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 생각을 앞세우면서 혁신적인 방도를 모색하였다. 좋은 안들이 나왔다. 그중의 하나가 강냉이개꼬리뽑기와 고갱이에 영양액주기였다.

일군들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뼈에 새기고 개꼬리뽑기에 힘을 넣었다. 개꼬리뽑기를 잘하면 이삭을 크게 자래우고 통풍, 빛받이가 잘되게 할수 있었다. 또한 키를 작게 하여 비바람에 견디게 하고 강냉이대벌레, 진디물의 서식조건을 없애버림으로써 병해충구제에도 좋았기때문이였다.

영농방법을 혁신한다고 저절로 성과가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치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대중의 앙양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은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현장지휘를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고갱이속에서 개꼬리의 끝부분이 나와 보이기 시작하면 낮시간에 그것을 감싸고있는 잎과 함께 뽑아주게 하였다. 생육상태가 약한 개체들을 위주로 하면서 줄 또는 포기를 건너가며 뽑고 밭변두리의 포기에서는 개꼬리를 뽑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개꼬리는 단번에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일군들은 이런 조건을 타산하여 개꼬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포전담당자들이 강냉이의 생육상태를 따져가며 뽑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에는 작업조를 조직하여 와닥닥 해제끼면서 여러회 진행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제4작업반에서는 개꼬리를 뽑기 전과 후에 진거름과 소석회, 쑥, 적은 량의 비료를 섞어 만든 영양액을 한주일에 한번씩 고갱이에 주어 정보당 100㎏이상의 비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900㎏을 증수하였다. 농장에서는 이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조직하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자연기후조건에 빙자하기 전에 혁신할 생각을 앞세우고 좋은 농사경험들을 실속있게 받아들이며 알곡증산투쟁에 앞장선 농장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전투적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 영 철

8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8월 상순에 우리 나라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아열대공기가 흘러들면서 장마비가 내리겠으며 서해안과 북부내륙의 일부 지방들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것이 예견된다.

8월 상순 강수량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정도일것으로 본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으며 날씨는 습하고 무덥겠으며 고온현상도 자주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작물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논벼농사에서는 생육이 좋지 못한 포전들에 대한 비료주기와 김매기, 논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하여 생육이 억제되였거나 모내기를 늦게 한 포전들에서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하였거나 염피해로 생육이 억제되고 씨뿌리기와 모내기를 늦게 하여 평당 아지수가 400대이하로 적은 포전들에서는 이삭패는 시기가 8월말～9월초로 예견되므로 7월 하순－8월 상순에 조절비료와 이삭비료를 10일간격으로 주어야 한다. 평당 아지수가 500～700대인 포전들에서는 이삭이 8월 하순에 팰것으로 예견되므로 7월 하순에 비료를 주어야 한다.

논벼생육이 좋지 못한 포전들에 2%뇨소액과 함께 천연생물활성제, 후민산염, 티오균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등을 분무하여 논벼의 생육상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성장촉진제를 리용하여 이삭패기를 앞당기고 여물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논벼농사에서 이삭패기가 진행되는데 맞게 논물관리를 잘해야 한다. 논벼는 이삭패기 15일전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 물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으므로 물이 마르지 않도록 얕은물대기, 간단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뿌리썩음병이 생기는 포전들에서는 장마가 시작된것만큼 물을 완전히 떼며 티오균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고농도린세균비료 등을 뿌려주어 뿌리의 활성을 높여야 한다.

침수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논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물을 제대로 대지 못했던 포전들에서 비가 오면서부터 물이 많이 나오므로 김매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매기를 잘하지 못하면 정보당 소출이 50～60%까지 떨어질수 있다.

어린 이삭이 형성되지 않은 포전들에서는 살초제를 리용하여 김을 잡도록 하며 어린 이삭이 생겨 자라는 단계에 있는 포전들에서는 손김매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개꼬리뽑기를 잘하며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중간늦종, 늦종강냉이의 개꼬리뽑기를 잘해야 한다.

가물로 이삭이 나오지 않았거나 이삭이 나왔어도 수염이 나오지 않아 수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개꼬리뽑기를 하여 이삭이 나오게 하며 오사리끝을 잘라주어 수염나오기를 촉진시켜야 한다.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논에 심은 강냉이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둘레물도랑과 걸면물도랑치기, 고랑가셔주기를 잘하며 필지마다 물고를 여러개 만들어주어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해야 한다. 논에 강냉이를 두둑재배한 경우 두둑골을 깊이 째주어야 한다. 강냉이를 이랑재배한 포전은 후치질을 깊이 해주어야 한다.

뒤그루강냉이는 이삭비료주기를 빨리 끝내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뒤그루감자싹틔우기와 포전갈이를 잘해야 한다. 긴싹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습해와 넘어짐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작물들의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포전마다 쑥우림액을 리용하여

서흥군 가창협동농장에서

서흥군 가창협동농장 일군들이 가물과 큰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포전마다 쑥우림액을 리용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여름철에 독이 오른 쑥으로 우림액을 만들어 잎덧비료주기를 하고 포전에도 흘러들게 하면 벌레잡이효과가 높고 논벼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었다.

그 어느때보다 논벼생육이 불리한 현실적조건에서 쑥우림액을 쓰지 않는 경우 적지 않은 농약과 비료를 포전마다 주어야 하였다.

결국 당의 뜻대로 현실에 맞는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하여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논벼를 튼튼하게 자래울수 있었다.

일군들은 잎덧비료주기에 쓸 우림액을 뜨거운 물에 쑥을 넣어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물고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닥에 단으로 묶은 쑥을 깔아주고 보름에 한번씩 바꾸도록 함으로써 쑥우림액이 생기는족족 포전으로 흘러들게 하였다.

여름한철 쑥우림액으로 논벼를 자래우니 비배관리에 로력과 영농물자를 적게 들이면서도 성과를 높일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매기를 실속있게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의 농장에서는 김매기전투를

일군들이 논김매기를 하면서 토양을 긁어주는 작업에 힘을 넣고있다.

올해 농장에서는 극심한 가물로 논에 물을 충분히 대지 못하고 모내기를 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앞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들은 가물을 극복하면서도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협의회를 현장에서 열었다. 토론끝에 찾은 결론은 호미로 토양을 긁어주는데 힘을 넣자는것이였다. 즉 토양긁어주기를 하여 김잡이도 하고 토양수분이 날아나는 현상도 막자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김을 잡으면서도 토양속의 실관을 끊어주어 수분이 증발하는것을 막을수 있었다.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특히 손김매기에 많은 로력이 드는 조건에서 작업반, 분조별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김매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였다. 지금 김매기전투로 온 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전 명 일

토지류실을 막은 비탈밭물길공사

희천시 동문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보호사업을 잘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류실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올해 희천시 동문협동농장에서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많은 품을 들였다.

성과는 컸다. 특히 700여m의 하천제방보수공사가 짧은 기간에 결속되여 강하천주변에 위치한 포전들을 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을 보며 농장원들은 올해에도 풍요한 강냉이작황을 펼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것만으로는 큰물피해막이대책을 당의 요구에 맞게 빈틈없이 세웠다고 떳떳이 말할수 없다.

빈틈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을 세울 결심을 안고 분발해나선 농장일군들은 포전들을 다시한번 밟아보면서 놓친것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비탈밭들을 돌아보던 이들은 잠업제1, 3작업반구역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 작업반의 뽕밭밑에 위치한 강냉이포전에 지난 시기부터 나있는 구불구불한 물길이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물이 말라버려 흔적만 남아있는 물길이였다. 하지만 지난 시기 비가 많이 오면 뽕밭에서 흘러내리는 대부분의 비물이 이 물길로 모여들군 했었다. 때문에 지금은 별일 없어보여도 일단 많은 량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귀중한 토지가 류실될수 있었다.

대책적문제가 즉시 현장에서 토의되였다. 많은 일군들이 구불구불한 물길을 직선으로 펴고 그 안벽을 돌로 쌓아주면 얼마든지 토지류실현상을 극복할수 있다는데로 의견을 합치였다. 그때 리당일군이 통나무를 물길의 바닥면과 수평이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묻어놓자는 제기를 하였다. 그리고는 사연을 설명하였다.

센 물살에 의해 물길바닥의 흙이 씻겨내리면 그우에 쌓아놓은 장석들이 무너져내릴수 있다. 결국 품들여 공사를 진행한 보람이 없게 된다. 그러나 통나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묻어놓으면 그것이 해당 구간의 물길바닥흙을 든든히 잡아주기때문에 토지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다. …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의 흙 한줌도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땀을 바쳐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그후 농장에서는 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에 따라 비탈밭의 토지류실을 막기 위한 물길공사가 진행되였다. 온 농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자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농장일군들이 공사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특히 무거운 돌짐을 지고 돌운반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이들의 이신작칙은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되였다. 농장원들도 애국의 땀을 바쳐가며 귀중한 한치의 땅도 류실되지 않도록 맡겨진 작업과제를 기술적요구대로 수행해나갔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농장에서는 단 3일동안에 이 공사를 결속하여 7정보의 비탈밭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성 일

김정일애국주의는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로작이 발표되던 당시 우리 혁명의 정세는 준엄하고 복잡다단하였다. 우리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혁명앞에는 헤아릴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조국의 부강발전은 오직 우리 인민의 앙양된 애국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룩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로 단결하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승리할데 대한 로작의 사상과 정신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에게 천백배의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준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세련된 령도는 조국땅우에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왔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지난 3년간의 투쟁이 보여준 고귀한 진리이다.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연사군에서도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연사군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이다. 우리 연사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적구호문헌들이 많다. 우리 군인민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민 연사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과 불면불휴의 로고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지난 기간 연사군당위원회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하여왔다.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교육, 문화시설들을 보다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위력한 정신적무기이며 모든 당조직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진행할 때 인민들의 애국적열의는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이 지난 기간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체득한 신념이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하는것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참다운 애국의 전통과 력사를 수놓아온 훌륭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빛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더없이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불굴의 투지와 열정의 자양분이다.

지난 기간 우리 군당위원회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구호를 웨치는 식으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폭넓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도록 조직사업과 지도를 짜고들어 심화시켜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고장답게 혁명사적관과 혁명전적지를 보다 훌륭히 꾸리고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생동한 사실들과 실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실효성있게 벌려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에 불을 지폈다. 결과 군내일군들과 인민들이 령도업적단위답게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최근년간 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남작리 소재지마을을 새로 훌륭히 꾸리고 방대한 규모의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를 진행하여 사지지구의 2 200여세대의 먹는물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연면수세방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의 개건보수사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산림복구전투의 첫해인 올해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그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려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과 헌신적인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사업을 사람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은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이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활동에서 뼈속깊이 절감하였다.

사실 고산지대로서 자연지리적조건이 불리하고 인구수도 적은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무슨 문제를 하나 해결하자고 하여도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패배주의, 동면하는 현상에 투쟁의 불을 걸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으며 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발동하여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우리는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혁명적사상공세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는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잠시나마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자기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던 일부 사람들도 너도나도 애국사업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자기 고장, 자기 향토를 사랑하는 군내인민들의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동시키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확신이 투철하였기에 우리는 군자체의 힘으로 읍지구에 수십동의 살림집들과 미래원, 서안고급중학교청사를 새로 건설하고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청소년체육학교 육체훈련관을 꾸리기 위한 목표들을 련이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일군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온 사회에 애국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름따라 신심드높이 일떠선 우리 인민의 애국의 심장들은 진실로 애국적인 당일군, 경제일군들을 부르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고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 설 때,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는데서 기관차가 될 때 인민들이 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군들이 모범이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 이끌어주었다. 최근년간 연사혁명사적관 구호문헌보존실을 새로 건설하고 군학생소년회관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국가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수행하고 피복공장과 기초식품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은것은 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 군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속에서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등짐도 지고 어깨를 들이밀어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신작칙의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수가 되고있는 일군들의 뒤를 따라 대중이 일떠섬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애국의 열풍이 날이 갈수록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지난 기간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생이 어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려는 당의 원대한 뜻과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투쟁의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인민의 락원으로 훌륭히 꾸려나갈것이다.

연사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최 승 일

백두대지우에 선군청년문화를 꽃피워가는 미더운 청춘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을 보고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 당기발과 원수별빛나는 최고사령관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형상한 세폭의 기발을 배경으로 의미깊은 화폭들이 펼쳐져있다. 완공의 날을 향해 키를 솟구는 거창한 발전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가까이에 있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이다.

지난 4월 멀고 험한 길을 이어 건설장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화폭들을 몸소 보아주시며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담은 선군청년문화의 참모습이 펼쳐지고있는데 대해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백두청춘들의 신념과 의지의 기록장이며 삶과 투쟁의 값높은 자욱자욱인 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의 화폭들마다에서 우리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는 내 조국의 힘과 기상을 다시금 온넋으로 새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이 감히 우리 청년들까지 변질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때에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를 담은 선군청년문화의 참모습을 만방에 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청년중시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압도하는 혁명적인 사상문화의 빛나는 쾌승입니다.》

직관선전판의 화폭들은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높이 울려갈 백두청춘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활화산같은 분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관적으로 형상을 잘했다고,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껴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신 직관선전판의 첫 화폭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력력히 느낄수 있다.

청년들의 억센 손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다. 열려진 대문안에서 승리의 축포 오르는 정일봉의 웅자와 함께 불야경을 이룬 삼지연군의 눈부신 전경이 환희롭게 안겨온다.

화폭의 윗부분에 정중히 모신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은 그대로 강성국가의 찬란한 래일을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열어나가려는 백두청춘들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인것이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그런 억척불변의 기개와 열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였다고 하신 직관선전판의 두번째 부분에서도 감명깊게 안아볼수 있다.

여기에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가 활달하게 새겨지고 저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위성이며 땅우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눈부신 절경들,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조국의 바다가 방불하게 형상되여있다.

화폭의 중심에 뚜렷이 부각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기발을 펄펄 날리며 나아가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은 백두산기슭에서 백두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백두청춘답게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오늘의 시대를 앞장에서 이끌어갈 그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말해주는 힘있는 형상이다.

백두청춘들의 삶과 투쟁의 빛나는 자서전, 이것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의 화폭들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이다.

직관선전판가까이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서두수물결을 헤가르고 아찔한 산봉우리들을 련결하며 솟아오른 거창한 언제들이 장쾌하게 안겨온다. 한치 또 한치 사나운 물살을 헤가르고 아아한 산발들을 꿰뚫으며 새겨온 고난과 시련의 자취들은 이제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직관선전판에는 잊을수 없는 그날의 화폭들이 오늘도 력력히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여준다.

《백두산전기를 기어이 삼지연군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백두산별동대!》라는 글발이 새겨진 화폭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뗄수 없다.

발전기실이 형상되여있는 화폭의 밑부분에는 돌격대원들이 헤쳐온 고난과 시련의 나날들을 말해주는 추억깊은 화폭들이 방불하게 재현되여있다.

봉락 또 봉락…

그림에도 있듯이 인간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려는듯 끝없이 계속되던 봉락구간을 한치 또 한치 돌파하던 사생결단의 길들도 있었고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동량들을 등짐으로 날라야 했던 간고한 행군길도 있었다.

《함박눈이 세멘트로 되여줄 순 없을가?》, 한 처녀돌격대원이 내리는 눈송이를 두손으로 받아들며 조용히 되이는 이 말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그림은 사람들에게 돌격대원들이 헤쳐온 고난과 시련의 그 나날들을 얼마나 생동하게 되새겨보게 하는것인가.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순간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연유가 없으면 마대전을 벌리고 착암기가 모자라면 정대로 바위를 깨면서도 완공의 날을 향한 진군의 발걸음을 순간도 늦추지 않았던 백두청춘들,

《백두의 눈보라와 청춘시절》이라는 글발아래 나붙은 소묘작품들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약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억세고 미더웁게 성장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보여주는 산화폭들이다.

돌격대원들이 들끓는 현장에서 직접 연필을 들고 한점 또 한점 그린 수십점의 소묘들, 그속에는 꿈에도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격정에 잠 못 들던 추억을 담은 소묘도 있고 전투의 쉴참에 펼쳐졌던 화선오락회의 흥겨운 장면을 옮긴 소묘들과 항일유격대 군수관들의 모범을 따라 자체의 부업기지를 꾸려놓고 흐뭇한 중대살림을 마련해가던 못잊을 나날들의 추억이 어린 소묘들도 있다.

그것은 그대로 백두의 눈보라속에 억세게 새겨온 백두청춘들의 삶과 투쟁의 자욱같아 볼수록 마음후덥다.

하거늘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억척같이 키를 솟군 발전소연제를 어찌 철근과 세멘트의 혼합물만이라고 하랴.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몰라보게 성장한 우리 청춘들의 사상의 키, 신념의 키이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의 결정체인것이다.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제일 간고한 조건들을 극복해야 하는 발전소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면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대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은 오늘 우리 청춘들을 백두의 칼바람맛을 아는 진짜배기혁명가들로 믿음직하게 키워내는 성스러운 혁명의 교정, 선군청춘대학으로 되고있다.

직관선전판에 새겨진 선군청춘대학이라는 글발과 수령결사옹위, 김정일애국주의, 자력갱생, 결사관철, 혁명적동지애,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과목으로 하는 성적증에 새겨진 최우등의 점수들은 그것을 말해주는 힘있는 증명이다.

뜻깊은 현지지도의 그날 직관선전판의 화폭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바로 이것이 선군청년문화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그것은 진정 백두의 혁명정신을 피줄기처럼 이어가는 자랑스럽고 미더운 이 땅의 청춘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값높은 표창이며 소중한 축하의 꽃다발인것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청년문제로 골치를 앓고있다. 부패타락한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가 되고 민족의 재앙이 되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조국은 세상에 없는 청년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청년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바란다고 하여 지닐수 없는 그처럼 성스럽고 고귀한 칭호를 자랑스럽게 빛내이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에는 그 가슴후련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원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일합니다!》, 백두청춘들의 심장과 심장이 모두 합쳐 터치는 이 불덩이같은 웨침이 새겨진 직관선전판앞에서 우리는 눈길을 뗄수 없다.

화폭의 중심에 뚜렷이 새겨진 글발 《주체99(2010)년 5월 16일, 주체104(2015)년 4월 19일》, 이 뜻깊은 력사의 날들에 대한 추억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돌격대원들의 부모형제들도 미처 와보지 못한 그처럼 험한 곳에 찾아오시여 백두청춘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힘을 주시고 천백배의 용기를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백두청춘들이 보고싶으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으랴.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 건설장을 찾아주시였던 그날의 사연은 또 얼마나 뜨거운가.

화폭에 새겨진 《수령 복 태양복 장군복》이라는 글발이 말해주듯이 우리 청년들이 누리는 복은 청년중시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가장 뜨거운 정과 사랑,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신 남다른 행운이고 긍지인것이다.

그래서 백두청춘들은 꿈을 꾸어도 우리 원수님을 그리는 꿈을 꾼다.

《꿈을 찍는 사진기는 없을가?》

한 돌격대원이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꿈을 쪽잠속에서 꾸다가 작업시작의 구령소리에 깨여나 동무들에게 꿈을 찍는 사진기는 없는가고 하면서 안타까와하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그림은 백두청춘들이 지닌 백옥같은 충정과 남다른 힘의 원천을 후덥게 새기여주는 참으로 여운깊은 화폭이다.

청년강국이란 진정 어떤 나라인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온넋으로 체득하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일편단심 그리며 따르는 청년들, 피끓는 심장을 다 바쳐 조국에 힘이 되고 시대의 기념비가 되는 훌륭한 창조물들을 보란듯이 안아올리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청년강국인것이다.

그렇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한 력사와 업적이 응축되여있고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력력히 비껴있으며 그처럼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긍지와 위용이 세차게 맥박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직관선전판은 백두산기슭에 빛나는 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명화, 긍지높은 《해설문》인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 진 형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남녀평등권법령발포 69돐에 즈음한

절세위인들의 덕성이야기모임 진행

남녀평등권법령발포 69돐에 즈음한 절세위인들의 덕성이야기모임이 28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 시안의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우리 녀성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고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대동강구역 동문1동에서 사는 정영순은 해방전 강반석어머님의 지도밑에 혁명사업에 참가한 외할머니 채주선과 가정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외할머니가 오랜 세월 적들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자신의 사진을 보관해낸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살던 온 일가를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생활과 건강, 치료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무대에 나선 선흥식료공장 계산원 허숙영은 녀성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할머니 허정숙이 값높은 생을 누린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해외에서 귀국한 할머니의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여 공화국창건후 첫 문화선전상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생의 말년에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오랜 세월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여겨야만 했던 우리 녀성들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품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평범한 한 녀성이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극적인 운명전환을 한데 대한 보통강구역 서장동에서 사는 김선실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첫 녀성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사업하였으며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요람》이 창작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정녕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베풀어주신 뜨거운 은정은 자기 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 가정이 받아안은 은혜로운 사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사랑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판리위원장 김명연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18살의 단발머리 농산기수였던 자신을 한개 농장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군으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는 언제나 인민들의 식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 농장에 나오시여 나아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농장이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꾸려지고 장천땅이 인민의 락원, 별천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개막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개발한 2 50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 등의 형태로 전시되여있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직할시)단위로 출품된 전시품들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핵심기초기술, 응용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성과자료들이 있다.

전람회기간 과학기술발표회, 지적제품류통사업 등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28일에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발명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과학전선이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람회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명과 새 기술을 더 많이 창조하고 지적제품의 류통을 활성화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발명과 새 기술창조사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전환되여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전람회가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주체과학기술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신문 《년전》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관후이 히엔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신문 《년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문수물놀이장 등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고마운 제도에서 우리가 삽니다

저는 세쌍둥이어머니입니다. 자식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군 하는 한 일군을 소개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청암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금철동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저의 집에 문득 찾아온 위원장동지가 갑자기 이사준비를 하자는것이였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에게 함께 온 일군이 이야기를 해서야 사연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세쌍둥이가 머지않아 육아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겠는데 그 애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동지와 일군들이 한달나마 고심하며 집을 꾸렸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모로 보나 나무랄데 없는 네칸짜리 살림집으로 이사하면서 저의 가족들은 뜨거운 것을 삼키였습니다.

우리 동의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위원장동지의 승용차를 가리켜 《세쌍둥이 차》라고 흔연히 말합니다.

어떤 날에는 갖가지 영양식품을 차에 한가득싣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세쌍둥이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세라 애들을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도 구역안의 크고작은 일로 누구보다 바빴지만 세쌍둥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 밝고 명랑한 웃음을 안겨준 위원장동지였습니다.

때없이 찾아와 세간난 자식을 위해주듯 가마뚜껑도 열어보며 구석구석 생활을 보살펴주는 위원장동지를 대하면서 저와 가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 발이 닳도록 뛰는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자고 말입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인곡1동
45인민반 고 은 심

세계장기련맹 위원장일행 도착

끼르싼 일룸쥐노브 세계장기련맹 위원장과 일행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가 맞이하였다.

룩셈부르그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떠나갔다

프랑크 엥겔 룩셈부르그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그는 체류기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원산육아원, 애육원,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진군대오에 혁명열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들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을 만나보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열린 영광의 대회, 위대하신 그이의 열정적인 축하연설이 장내를 뒤흔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장엄하게 울려간 뜻깊은 대회!

우리모두 격정속에 보았다. 머리에 백발을 떠인 80대, 90대에도 영광의 단상에 올라 위대한 선군령장의 진정넘친 축복과 최대의 경의,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받아안으며 지나온 생을 떳떳이 총화하고 앞으로의 드팀없는 전진과 투쟁을 굳게 다짐하는 전화의 군복을 입은 《열혈청춘》들의 긍지높은 모습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로병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더우기 한생을 인민군대의 작곡가로 복무해온 리동준전쟁로병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들이 어려와서인가, 떠나간 전우들에 대한 추억이 갈마들어서인가.

그는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자기의 한생이 응축되여있고 전승세대의 고귀한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는 노래들을 온넋으로, 심장으로 부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습니다.》

무대우에 오르는 하나하나의 전시가요들을 되새겨볼수록 리동준전쟁로병의 눈앞에는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전쟁이 일어나자 리동준전쟁로병이 제일 처음으로 익힌 노래는 《조국보위의 노래》였다. 전쟁로병이라면 모르고 입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선으로 탄원한 모든 청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을 피로써 사수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그러나 원쑤와의 싸움은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가요 《결전의 길로》에도 있는것처럼 원쑤의 불구멍을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수령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결전의 길로 서슴없이 나아갔다. 지금도 리동준전쟁로병은 가요 《결전의 길로》를 들을 때면 적의 화점을 막고 쓰러진 전우의 죽음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오선지에 하나하나의 선률을 그어나가던 종군작곡가 김옥성선생의 모습이 떠오르고 적기의 기총사격에 쓰러지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숨을 거둔 이름모를 예술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말하였다.

리동준전쟁로병은 전후시기에 본격적인 가요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어중이떠중이들이 당에 도전해나서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자주적로선을 시비해나섰을 때 리동준작곡가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던 전우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각하며 수령결사옹위를 주제로 한 가요창작에 달라붙었다.

리동준전쟁로병만이 아닌 전화의 화선병사들모두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김정은장군찬가**》를 심장으로 부르고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장소는 어제날 화선용사들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로 하여 더더욱 뜨겁게 설레였다.

화선병사들이 부른 심장의 노래, 그것은 전승의 7.27을 최후승리의 7.27로 이어가려는 신념과 의지의 노래, 영원한 승리의 노래였다.

리 신 향

화선용사들이 심장으로 부른 노래

하늘땅을 진감하는 축포성, 창공높이 솟구쳤던 축포탄들이 오색령롱한 불꽃을 뿌리며 황홀하게 펼친 불야경은 얼마나 장쾌한가.

뜻깊은 전승절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세계를 수놓으며 터져오른 축포,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설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습니다.》

남다른 격정과 감회에 휩싸여 경축의 축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로병들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부신 전승의 그날에도 축포가 올랐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김경환전쟁로병은 뜨거운 추억속에 이런 말을 터치였다.

지금으로부터 62년전 22살의 인민군사관이였던 김경환은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는 열병식에 참가하였다.

전승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축포를 바라보며 긍지와 기쁨에 가슴들먹이던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오늘 경축의 축포는 김경환전쟁로병만이 아닌 로병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과연 이 땅에 전승의 축포는 어떻게 올랐던가. 어떻게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기고 영웅의 나라로 세계만방에 자랑떨칠수 있었던가.

천하대적도 쥐락펴락하시며 백두의 담력과 배짱, 신묘한 지략과 전법으로 날강도 미제를 타승하시여 우리 조국을 승리의 단상우에 높이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승리의 축포는 그렇게 올랐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겨주며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제날의 승리는 있어도 오늘도 영원한 승리자로 떳떳이 자부하는 군대와 인민은 오직 이 땅에만 있다.

이 땅의 모든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져왔으며 무엇으로 하여 영원한것인가를 천만군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전승절의 경축의 축포,

경축의 광장에 펼쳐졌던 불보라를 감사의 꽃다발로 엮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조국을 피로써 지켜낸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고싶은것이 전쟁로병들과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불타는 그 마음들에 받들려 전승의 축포성은 영원히 선군조선의 승리의 진군가로 힘차게 메아리칠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격정의 눈물속에 지새운 밤

◎ 대회의 나날에 꽃펴난 이야기들 ◎

지난 7월 25일,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도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쉬이 잠자리에 들지 못하였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되새기는 그들모두의 가슴이 뜨거운 격정으로 꽉 차올랐던것이였다.

그들은 한밤이 지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자기들의 심정을 일기장들에 적었다.

《요즘은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려 눈물만 난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

잠들수 없다. 크나큰 격정에 눈물을 걷잡을수 없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그렇게 값높이 불러주시다니. 영원히 잊을수 없는 오늘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생의 끝까지 원수님의 뜻대로만 살리라.》

이것이 어찌 안병옥전쟁로병의 심정뿐이겠는가.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을 조국과 후대들앞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하도 고마와 대회참가자들모두가 잠 못 이루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것이다.

뜻깊은 나날이 흘러가고있다. 이 나날에 대회참가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일군들이다.

이틀전이였다. 그날 저녁에도 침실을 돌며 환자가 없는가를 세세히 알아보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간호원 리금정, 최향옥동무들은 한 전쟁로병의 머리말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알고보니 개성시에서 온 **영원한** 머칠전 아침 일찍 대회참가자인 함흥시의 유회숙전쟁로병이 한 일군을 찾아왔다. 그가 가져온 지함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관리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유회숙전쟁로병은 일군에게 관리도구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리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뜨거운 정성

전쟁로병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그들은 즉시 대책을 세워 전쟁로병할아버지가 편안히 하루밤을 보낼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는 밤을 꼬박 밝혀 환자의 병상태를 관찰하였다. 그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전쟁로병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집떠나올 때부터 시의 일군들과 의료일군들이 따라서며 힘들세라 아플세라 따뜻이 돌봐주었는데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이 대해주며 성의를 다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랴.)

전쟁로병들을 끝없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서 전쟁로병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뜻깊은 나날을 보내고있다.

충정

《우리 전쟁로병들을 끝없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제 남은 생에 후대들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렵니다.》

평양으로 떠나던 날 바래주러 나온 자식들과 이웃들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며 조국수호의 길에서 위훈을 새기던 어제날의 간호원, 전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면서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유회숙전쟁로병이다.

열걸음을 걸어도, 백날을 살아도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고 한몸 서슴없이 바쳐온 우리 로병들의 충정은 이처럼 변함을 모르는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조국결사수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쟁로병들의 빛나는 삶이 천만군민의 심장을 틀어잡는 고귀한 인생의 모범으로 력사에 새기는 당부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우리 당이 은혜로운 손길로 또다시 펼쳐준 사랑의 금방석인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오면서 수많은 로병들이 전화의 나날에 희생된 전우들을 생각하였다. 인민군전사들의 선혈로 붉게 물든 락동강모래불에, 가벼운 안개도 다 못 오르고 중턱에서 잠들고말았다는 문경고개의 높고 험한 산발들에 피눈물을 삼키며 묻고온 전우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간고한 행군길에서 17살의 어린 병사인 자기를 부축하며 《꼬마,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해.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면 우린 다시 승리의 진군길에 오르게 될거야.》라고 걸음마다 힘을 주던 어제날 중대장을 감회깊이 추억한 로병도 있다.

조국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결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쓰러진 전우들에 대한 간절한 생각으로 로병들은 만수대언덕에 올라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그들의 마음까지 합친 영생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그런 그들이 대회참가증을 받아안던 날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대회참가증에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광장에서 수많은 인민군군인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모습도 형상되여있었던것이다.

(영광의 대회장에 전우들도 다 함께 왔구나!)

모든 참가자들이 이런 생각에 눈물지었다.

우리 당이 친히 묘주가 되여 훌륭히 일떠세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도 로병들은 잊지 못할 전우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였다. 평성시의 리재택전쟁로병은 351고지전투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을 만나보았고 김화룡영웅중대장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정깊은 전우들의 모습을 마주한 남포시 항구구역의 김홍전전쟁로병은 운명의 순간 자기 손목을 부여잡고 조국의 고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하던 중대장을 감회깊이 추억한 로병도 있다.

조국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결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쓰러진 전우들에 대한 간절한 생각으로 로병들은 만수대언덕에 올라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그들의 마음까지 합친 영생축원의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그런 그들이 대회참가증을 받아안던 날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대회참가증에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광장에서 수많은 인민군군인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모습도 형상되여있었던것이다.

이번 대회참가자들가운데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적기를 11대나 쏴떨군 유명한 비행기사냥군조원이 있는가 하면 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화선야장간을 차려놓고 적포탄파편들로 정과 망치, 곡괭이를 비롯한 공구들을 만들고 놈들의 불발탄에서 화약을 얻어내여 포진지요새화의 암반굴진에 리용한 1211고지의 대담무쌍한 포병도 있다.

만경대구역의 고창성전쟁로병은 전쟁기간 억세게 틀어잡았던 자기의 무기에 대하여 말했다.

《전쟁 3년간 제가 들었던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인민군협주단 배우로 포연탄우를 헤쳐온 저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 무기는 손풍금이였습니다.》

해방된 서울에서 첫 화선공연을 시작한 인민군협주단의 배우들에게는 무대가 따로 없었다. 병사들을 만나는 곳이 곧 무대였고 가렬한 전투장에서의 한차례한차례의 공연은 말그대로 목숨을 내건 피의 결사전이였다.

우리의 종군예술가들이 화선에서 적들의 함포소리와 적비행기폭격소리를 짓누르며 하루에도 10여차례의 공연무대를 펼칠 때 신성천기관구의 한 처녀기관사는 끊임없는 폭격과 포격, 숨막힐듯 매운 연기속에서 《미제에게 죽음을!》이라고 피타게 부르짖으며 전시수송물자를 실은 기관차를 힘차게 몰아갔다.

그들모두는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혁혁한 기여를 한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이다.

한 전쟁로병은 나는 전선으로 탄원하며 살아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한없이 고마운 인민의 새 나라를 결사수호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였다고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했다.

해방전 노예살이의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진정한 조국이 없는 삶이란 인간이하의것이라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합쳐놓았으며 조국을 지키는 길에 자신의 피와 살,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것을 인생의 크나큰 영광, 둘도 없는 행복으로 여긴것이다.

이런 투철한 인생관으로 그들은 미제와 싸워 이겼고 위대한 조국수호자, 전쟁로병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다.

우리 당과 조국은 가렬처절한 1950년대에 어느 전선의 어느 고지를 지켜싸웠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 나라의 운명,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온넋을 바치고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라면 리수복과 강호영, 안영애나 다름없는 민족의 장한 아들딸, 참된 애국자로 내세우고있다.

전쟁로병, 그 부름만 들고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숙이며 평범하던 눈빛을 거두고 금시 경건하고 엄숙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고 육탄으로 적기와 적땅크를 맞받아나가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한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총진군대오의 영원한 전투원, 기수로 서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뿐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전쟁로병들이 이렇듯 높이 떠받들리우는가.

어느 당이 살아있는 전쟁로병 한사람한사람을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존대하는가.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불사신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온 인민군용사들의 전설적인 위훈담들과 피어린 자욱들은 절대로 잊혀질수도 지워질수도 없으며 강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는 우리 원수님의 높은 뜻,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의지로 하여 조국결사수호에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로병의 투철한 정신, 로병의 고결한 인생관은 나날이 더욱 굳건해진다.

폭탄이 튀고 탄알이 비발치던 가렬한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통채로 삼켜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있는 오늘의 일터와 마을들에서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던 전화의 그 정신으로 살고 일하며 한생 견실한 군인의 자세로 총진군대오를 고무해주는 우리의 전쟁로병들, 그들은 충정과 애국으로 불타는 변함없는 삶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주인공들인 혁명의 계승자들에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의 긍지높은 이름으로 간곡한 당부를 남긴다.

조국결사수호에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있다!

글 본사기자 허 명 숙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남

가정교양은 참된 인생의 기초

락랑구역 충성3동 45인민반 박미선녀성의 가정에서

얼마전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았던 우리는 기특한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야간지원청년돌격대 대원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지용동무와 건설장의 꾀꼴새로 불리우는 그의 동생 평양음악학원 학생 김지예동무에 대한 이야기였다.

쑥섬전역에 피여난 또 한떨기 아름다운 청춘의 꽃,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고싶어 건설장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 지휘부를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교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침 하루공부를 마친 김지용동무가 돌격대지휘부로 들어서고있었다. 단정하고 씩씩한 선군시대 대학생의 풍모가 확연하게 안겨오는 김지용동무는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할뿐이라며 한사코 취재를 마다하였다.

《제가 야간지원청년돌격대에 달려나갈 때 조선인민군 군관인 저의 아버지는 군인건설자들에게서 혁명적군인정신이란 어떤것인가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많은것을 배우고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전투장으로 떨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며 지휘부의 일군은 훌륭한 청년이라고, 건설장에는 저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지용동무의 동생 김지예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김지용동무는 대학의 교육과정안에 따라 얼마동안 평양을 떠나 생활하게 되였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오빠를 대신한다고 하면서 한 처녀가 건설장에 나타났다. 그가 바로 김지예동무였다. 이미전부터 건설장에 자주 나와 전투원들을 고무하는 노래도 부르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그 처녀가 김지용동무의 동생이라는것을 건설자들은 그때에야 알았다고 한다.

참으로 기특한 오누이였다. 우리는 자식들을 그처럼 훌륭하게 키운 부모에 대해 알고싶었다.

지휘부의 일군은 돌격대지휘부로 들어서는 한 녀성을 가리켜주었다. 그가 바로 락랑구역 충성2동사무소 일군인 박미선동무였다.

자식들과 함께 그도 매일같이 건설장에 달려나와 헌신의 구슬땀을 바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 우리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열백마디 말보다 더 많은것을 말해주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저는 자식들이 벅찬 조국의 숨결을 함께 호흡할줄 아는 진짜 배기청년들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자식들과 약속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떨쳐나 건설자들을 돕자고 말입니다. 애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군판인 남편이 제일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걸음이였다. 매일 밤이 깊어서야 건설장에서 돌아오는 자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는 할아버지며 바쁜 출장길에서도 전화로 아들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정형에 대해 잊지 않고 묻는다는 아버지 김성훈동무, 특히 많은 일감들을 안고있는 속에서도 자녀교양을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품을 들이는 박미선동무의 모습은 참으로 돋보였다. 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박미선동무는 밤이 퍽 깊어서야 돌아온 아들이 건설자들을 더 잘 도와주고싶어 마음쓰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짬짬이 아들의 마음까지 합쳐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애써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자식들의 손에 들려주며 건설장으로 떠민적은 그 몇번…

지난 5월 이 가정에는 경사가 났다.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애국의 깨끗한 마음을 바치고있는 김지용동무에게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신것이였다. 그날 밤 온 가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싶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소원을 뜨겁게 헤아리시며 은정넘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우러르며 박미선동무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보답의 길은 더 힘차게 이어졌다. 아들 지용이는 야간지원청년돌격대활동에 참가하는 몸이지만 학습도 전투로 여기고 바쁜 속에서도 더욱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생활하고있고 딸 지예는 쑥섬전역만이 아니라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도 자진하여 참가하고있다고 말하는 박미선동무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행복감이 가득 어려있었다.

훌륭한 가정은 참된 인생의 터전이다. 이 땅의 새 세대들을 혁명의 바통을 억세게 이어갈 참된 계승자들로 키우는데서 매 가정들이 조국앞에 맡고있는 몫은 자못 크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소중히 모셔져있습니다. 그곁에 오빠와 제가 우리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을 함께 모시고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지예동무가 조용히 하는 그 말이 깊은 여운을 안고 울려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가. 그런 소중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알차게 움틔워주는 훌륭한 가정이야말로 애국의 첫 삶, 값높은 청춘의 첫 발자욱이 새겨지는 소중한 토양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민족의 향취 차넘친 이채로운 경연

전국단고기료리경연장에서

삼복철이 오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단고기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한것은 단고기국이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삼복철에 즐겨 먹어온 민족음식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23일 우리는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연장소인 평양면옥을 찾았다. 경연은 중복날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모았다. 단고기장, 단고기등심찜, 단고기갈비찜, 단고기다리찜, 단고기보쌈, 단고기위찜, 단고기참깨완자, 단고기보양찜, 단고기삼색순대, 단고기힘줄오이랭채…

전시된 료리들은 수십가지나 되였다.

경연장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번 경연이 자기 지방과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리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고나서 성의껏 만들어 전시해놓은 단고기료리들을 다시금 바라보느라니 심사성원들도 순위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연인것만큼 등수는 나기마련이였다. 이번 경연에서는 평양단고기집이 1등을 하였다.

단고기는 다른 고기들보다 소화흡수률이 높을뿐아니라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되는 포화지방산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포함하고있다. 단고기의 고유한 맛은 물론 이러한 우점에 기초한 약효는 그 가공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1등을 한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의 가공방법 즉 단고기료리를 맛있게 만드는 비방을 더욱 알고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식당에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바로 그 비방입니다.》

특색있는 식당건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적인 봉사설비들과 운수수단, 정연한 원자재공급체계에 이르기까지 식당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자기들이 만든 단고기료리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며 가공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그 사랑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아글타글 노력해온 나날을 더듬는 주방장 김영숙동무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였다.

이어 그는 단고기료리를 만드는데서 고기의 비린맛을 없애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었다. 비린맛을 없애는데서 기본은 단고기의 피물을 잘 뽑는것이다. 그러자면 흐르는 물에 고기를 잠그어놓아야 하는데 여름에는 3~4시간, 겨울에는 8시간정도가 좋다. 이렇게 하면 비린맛을 없앨뿐아니라 고기의 색갈도 보기 좋게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향신료로 쓰이는 남새를 리용하여 단고기의 비린맛을 없앨수 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경연장에 단고기삼색순대를 만들어내놓은 강원도 원산시에서 온 료리사 박영원동무도 만나보았다. 순대를 만들어 봉사해보니 손님들의 호평이 대단하였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민족음식의 가지수를 더욱 늘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경연참가자들의 헌신의 모습들을 그려볼수 있었다.

우수한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민족음식발전에 적극 이바지해갈 불타는 열의가 차넘친 전국단고기료리경연장, 중복날에 펼쳐진 민족료리경연무대와 참가자들의 앙양된 모습을 통하여 나날이 풍부해질 민족음식과 더불어 더욱 아름답게 꽃펴날 사회주의생활의 래일이 어려와 우리의 마음도 기쁘기 그지없었다.

글 및 사진 조 향 미

미제를 내리막길의 운명에 처넣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조국의 자유와 독립, 세계평화를 수호하신 희세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그날로부터 62년이 지났다.

전승절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침략의 떼무리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세계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기나긴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들을 기록하고있고 적지 않은 위인들과 명장들을 전하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인들과 명장들을 다 합친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는 비할수 없다.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당시 가장 첨예한 정치군사적문제로, 국제적문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그것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이 세계사회주의에 대한 횡포한 도전으로서 사회주의력량을 비롯한 진보적력량을 군사적힘으로 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것이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안기시여 세계《최강》을 뽐내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시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령군술이 낳은 수많은 전설적이야기들가운데서 한가지만을 돌이켜보자.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정복하고 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아시아침략의 군사전략기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제는 참패에 참패만을 거듭하게 되였다. 그 책임을 지고 트루맨이 대통령감투를 떼우게 되였다. 그대신 1952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쟁광신자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쟁을 《즉시 종식시켜 미국인의 희생을 덜어주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지켜 곧 전쟁마당에 나타났다. 미국이 생겨난이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바쁘게 전쟁마당에 나타나 돌아친것은 그때가 처음이였다고 한다. 이 호전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위신》과 고용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신공세》라는것을 벌리기 위해 고안해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정형고지전투였다.

정형고지는 전선중부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다. 이 고지를 우리 인민군대가 방어하고있었다.

미제는 이 고지를 빼앗기 위한 공격전투를 《모범전투》로 세상에 소문내기 위해 최대의 공세준비를 은밀히 다그쳤다. 1953년 1월 어느날 이른새벽 미8군사령관의 지휘밑에 적들은 드디여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들은 공격개시직전에 수십대의 비행기를 출동시켜 줄폭탄을 퍼부었고 자그마한 이 고지를 촘촘히 누비듯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다음 화염방사기로 고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모든 생명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한 다음에야 지상부대를 내몰았다. 이미 이곳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고지에서 여러차례나 공격연습을 한 적들은 수많은 병력으로 수십대의 땅크를 앞세우고 맹렬히 공격하였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돌아치며 지상부대의 공격을 엄호하였다. 이날 미제는 저들이 《어떻게 공산군을 소멸하는가 하는것을 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 와있는 추종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유엔군》 종군기자들을 현지에 끌어들였다. 미제침략군의 고위지휘관이라는자들도 《참관단》의 앞줄에 거들먹거리며 서있었다. 《참관단》이 공격전투를 보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우뢰같은 포성이 터지면서 미제침략군의 공격서렬에 불벼락이 떨어졌다. 고지뒤쪽에 감쪽같이 진지를 차지한 우리의 포병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제때에 꿰뚫어보시고 강력한 포병부대를 재빨리 기동시키신 탁월한 령군술로 하여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셈이였다.

이 전투에 대하여 미국의 한 출판물은 《클라크와 밴플리트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한 언덕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포탄을 쏘았고 가장 우수한 기계화병력을 투입하였으나 완전히 실패하였다.》라고 썼다.

정형고지전투에서 치명적타격을 받은 적들은 아우성을 쳤다. 미8군사령관은 《제2차 세계대전때 가장 강한 방어선으로 소문났던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도이췰란드의 지그프리드선보다 조선전선에 구축된 공산군방어선이 훨씬 더 견고한것이다.》라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자리를 따내자바람으로 《위세》를 돋구어보려다가 조선의 자그마한 언덕에서 보기 좋게 얻어맞았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참패한 수많은 전투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어느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있었다는것을 체험을 통해 절감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당시 미국이 만든 작전계획은 미국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참모장들, 군사전문가들인 수십명의 부르죠아장군들이 여러차례 모여서 토의한 끝에 만든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장군께서는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심든든하게 승리를 확신하시고 온 나라 전체 군민을 미제와의 대결전에로 조직동원하시는 한편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미제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만천하에 발가놓으심으로써 미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번지던 전화의 그날 프랑스신문 《유마니떼》 기자와 국제녀맹조사단 그리고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외국인들을 만나시여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제의 검은 속심을 까밝히시였다.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치떨리는 살륙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차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한 담화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시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평화는 오직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강령적지침과 력사적진리를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령군술로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시였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였다.

미제의 패배를 두고 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 많은 면에서 기록을 남긴 주목할만 한 전쟁이였다. 우선 근대세계력사에서 초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오던 미국이 패전한 첫 전쟁이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떨친 력사적승리에 고무된 진보적인류는 반제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의 거세찬 불길이 타번지였다.

승리는 바란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 때만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다.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실 때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 더욱 창창한 미래가 담보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심과 영웅적기상은 하늘을 찌를듯 높다.

미제가 만약 1950년대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더한 참패를 당하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조선의 승리의 날》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가 2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의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글은 1950년 6월 25일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은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할수 있은것은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군사지략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석께서는 비록 나라의 군사적, 경제적토대는 미약하다 해도 당이 있고 국가가 있으며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는 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지니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침략자들을 타승하시였다.

미국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은 건국이후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몰랐다는 미국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으로 되였다.

글은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에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90년대 조선반도핵위기 등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계속 격화시켜왔지만 그 모든것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막을 내린데 대하여 력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군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벌려놓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은 빈말을 모르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고 있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정치사상강국, 공격과 방어에도 다 준비된 군사강국인 조선은 오늘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조선에 덤벼들지 못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의 련전련승과 더불어 조선의 7.27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은 결코 강대국이 아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어진 조선전쟁은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110여차례의 침략전쟁들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강대국》 미국과의 대결전이였다.

사실 오만한 미제는 우리 조국땅우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를 당시 3일내에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먹어치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제놈들이 전장에 나타나기만 해도 인민군대는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을것이라고 타산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였다. 자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것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자기의 막강한 경제력과 수적, 군사기술적우세 그리고 《승리》만을 《쟁취》한 그때까지의 침략전쟁사를 놓고 기고만장해하며 자기의 《강대성》에 대하여 떠들어대기 좋아하였다.

그러나 이 《강대성》의 신화가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 조선에서 무참히 거덜이 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은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과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지키기 위해 불사조같이 싸운 조선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타파하고 세계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이와는 반면에 딸라에 팔리운 고용병들의 무리인 미제침략군은 정치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한 군대였다.

미제침략군의 정치도덕적부패성은 미군병사들이 염전사상에 사로잡혀 위험이 닥쳐오면 탈주하군 하는데서 나타났다.

당시 미해군 검사총장이였던 맥올리프는 공식발언에서 1952년말까지 《조선전쟁개시이래 미해군의 탈주병만도 4만 6 000명에 달한다.》고 고백했고 미륙군에서는 《월평균 2만, 때로는 하루에 3 000명의 탈주병》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도피자들을 법으로 다스리기 위한 군사재판이 매일같이 벌어졌고 미륙군성은 도주자체포비용으로 200만US$를 요구한바 있었다.

약자앞에서는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가도 일단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되면 꼬리를 사려 도망치는것이 바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이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전쟁기간 미제침략군병사들은 하나같이 《항복서》와 《생명보증서》들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였다.

인민군대에게 붙잡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꺼내보이며 포로로서의 생명담보를 얻으려고 하였던것이다.

적들은 나어린 인민군전사앞에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사시나무떨듯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돈과 물건들을 섬겨바치는것과 같은 비굴하고 역겨운 추태까지 부리군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난 조선전쟁에서 《강대국》 미국이 보여준 가련한 몰골이였다.

이처럼 딸라를 위해 전쟁판에 나선 군대,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군대였던것으로 하여 미제침략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의 위력앞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던것이다.

하기에 전 미국방장관 마샬은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한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고 실토하였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빛나는 승리를, 미국에는 치욕스러운 패배만을 가져다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앞에 진짜강자는 바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어언 6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자는 우리였고 미국은 패배자였다.

만약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허장성세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때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아예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말것이다.

안철권

패배를 당한 미제의 처참한 몰골

단평 식민지머슴의 가긍한 처지

남조선괴뢰들이 그토록 미국상전에게 아부굴종했건만 차례지는것은 늘 팔세와 멸시뿐이다. 얼마전 미국공화당의 대통령선거경쟁에 후보로 나선 한 인물이 남조선을 저들이 공짜로 《보호》해주고있다고 제편에서 목소리를 높인것이다. 이자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남조선에 안보대가를 요구할것이며 그러면 남조선은 2분안에 그 값을 지불할것이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문제의 발언을 한자가 이름도 없는 미국의 한갖 정객에 불과하지만 괴뢰들로서는 사실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지 않을수 없는노릇이다. 무엇을 주고 뺨맞는다고 지금껏 인민들의 혈세를 짜내여 미국상전에게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섬겨바치느라 곱사등이처럼 허리 펼새 없었던 괴뢰들이기때문이다.

미제침략군이 괴뢰들로부터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빨아내고 그것을 제 호주머니의 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미제침략군병사들이 남조선을 《미군의 천당》, 《제일 리상적인 군무지》로 꼽고있겠는가.

굳이 대가를 따진다면 오히려 미국이 지금껏 남조선을 타고앉아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히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한데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오만한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처럼 파렴치하게 남조선을 마구 몰아대고있다. 그야말로 남조선이 세계면전에서 당하는 치욕, 망신거리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괴뢰들은 제땅에 강점군을 두고있는탓에 억울해도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만 한다. 먹을수록 남남이라고 탐욕스러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리라면 또 그대로 해야만 하는것이 괴뢰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그에 아부굴종하는 괴뢰들은 그런 욕을 보아 백번 싸다.

김향미

탄저균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유엔에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탄저균국민조사단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탄저균반입과 실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남조선《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처리 및 운송관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남조선주둔 미군이 오산, 평택, 용산, 군산기지들에서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까지 주기적으로 반입하고 실험하여왔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생화학전체계를 완성하는 《쥬피터계획》의 책임자가 《주〈한〉미군 고위급이 쥬피터프로그람을 실험해보길 원했고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수 있다.》고 한것은 남조선을 미군의 생화학전쟁실험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밝힌것이라고 단체는 폭로하였다.

단체는 남조선주둔 미군이 조선반도에서의 생화학전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모든 생화학전훈련을 중단하고 관련무기를 폐기하며 시설을 폐쇄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저균과 같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의 비인도적인 생물무기는 국제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있다고 강조하고 단체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 미군의 탄저균반입의 진상과 세균전실험내막을 철저하게 규명하며 미국의 생화학무기개발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해 공평한 자대를 가지고 미국의 탄저균사건진상을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판에 박힌 술책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람을 리용하여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감행한 사실은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저들의 불법사찰행위를 합리화할 목적밑에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드는 망동을 부리고있다. 괴뢰들은 《북의 위협에 직면한 엄혹한 현실》이라느니,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느니,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느니 하며 철면피하게 정보원의 망동을 극구 비호두둔하는가 하면 해킹프로그람사용이 《북의 해킹위협에 따르는 대응》이라고 하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며칠전에는 정보원의 해킹보다 더 심각한것은 남조선을 겨냥한 《외부의 해킹공격》이라느니, 그것이 하루 평균 100만건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은 《북에 의한것》이라느니 하는 완전히 날조된 여론까지 퍼뜨렸다. 괴뢰패당이 생뚱같이 《북의 해킹위협》따위를 운운하며 우리를 물고늘어지는것은 정보원의 불법해킹을 정당화하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각계층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력대로 괴뢰들은 남조선에서 해킹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덮어놓고 우리와 련결시키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다. 이미 그 허황성이 낱낱이 드러나 세계적인 망신거리, 서푼짜리 모략극으로 락인된 《7.7전산대란》, 《농협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사건》, 《GPS전파교란사건》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2011년 4월 남조선에서 《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콤퓨터망이 싸이버공격으로 통채로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일을 상기해보자. 사건이 발생하자 괴뢰당국은 정보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합동조사놀음을 벌려놓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북의 소행》이라고 우겨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물론 괴뢰군 기무사마저 그것을 부정하는통에 괴뢰패당은 개코망신만 당하였다.

2011년 10월말에 있은 서울시장선거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의 인터네트홈페지가 디도스공격을 당하여 여러 시간동안 마비되였다. 사상 류례없는 이 싸이버테로사건은 젊은 층의 투표가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감행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

그때에 발생한 대규모의 정전사태에 대해서도 괴뢰들은 무작정 《북의 소행》이라고 떠들었다. 괴뢰들은 이미 그 허위성이 다 드러난 사건들까지 거들면서 정전사고는 《북의 싸이버테로에 의한것》이라느니, 그 가능성은 《거의 99.9%》이라느니 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정전사고원인이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자 메사해진 괴뢰들은 《성급한 분석으로 인한 실수》였다느니 뭐니 하고 꼬리를 사리고말았다.

이뿐이 아니다. 괴뢰패당이 그 누구의 《테로위협》을 운운하며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불시점검을 한다, 병력투입을 한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워댄것도 사회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 만연시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합리화하고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려는 비렬한 모략극이였다. 괴뢰당국이 남조선전역으로 메르스사태가 급속히 확대되자 그것을 초래한 저들의 죄악을 감추고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략여론을 고안해내여 류포시키다가 각계의 비난을 받은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괴뢰패당이 서투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저들의 추악한 정체가 말짱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정보원깡패들의 불법해킹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며 여론을 오도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 대결미치광이들인가.

남조선괴뢰패당이 벌리는 더러운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본거지는 악명높은 정보원이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각종 모략자료들을 꾸며낸것이 바로 괴뢰정보원이다.

지금도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불법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걸고들며 저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온갖 비렬한 방법을 다 쓰고있다. 하지만 범죄의 내막은 감출수 없다.

해킹프로그람운영을 담당했던 괴뢰정보원 직원의 돌발적인 자살, 추가적으로 밝혀진 138개의 인터네트 IP주소들, 련이어 드러나고있는 많은 대상들에 대한 불법해킹사실 등은 파쑈독재통치를 유지하고 진보민주세력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괴뢰정보원이 악랄하게 책동한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이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또다시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모략극을 연출하는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 규탄만을 자아내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정의와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괴뢰패당이야말로 검은것도 흰것으로, 거짓도 진실로 둔갑시키는 모략과 날조의 명수들이다. 지금 괴뢰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미친듯이 벌리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반공화국모략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괴뢰군부대배치책동 반대

22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주민들이 괴뢰군부패당의 해병대 포병부대배치책동에 항의하고있다.

괴뢰군부당국은 《국방개혁기본계획 2012-2030》에 따라 제주방어사령부를 해체하여 소속 해군무력을 새로 완공되는 제주해군기지로 옮기기로 하였다.

한편 사령부에 소속되였던 해병대를 9해병려단으로 개편하고 전시에 이 려단에 소속될 한개 포병부대를 신촌리에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촌리 주민들은 이곳에 예비군 관리대가 있을 때 주민지구에서 녀성들을 희롱하고 도적질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부대가 들어오는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량심수석방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15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량심수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2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는 지금도 감옥에는 《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악법들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수백명의 량심수들이 갇혀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자주, 민주, 평화를 위해, 생존권을 위해 활동한 량심수들을 석방시킬것을 단체는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117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